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2016. 10.

문화재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유물 취급 업무 부적정 등	2
(경고요구)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에서 ‘고려 금속활자’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학적 분석 중 금속활자 일부가 탈락 · 손상됨에 따라 손상 상태 · 경위 확인 및 관련자 책임 규명 등 사실관계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보존과학연구실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라만분광분석 관련) 등 ‘고려 금속활자’ 문화재지정을 위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2016년 1월 이후 실시된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중 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부서를 대상으로 유물 손상 경위 및 유물을 취급한 관련자들의 과실 유무와 분석 업무 매뉴얼 구비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8. 4.부터 같은 해 8. 19.까지 11일간 감사인력 4명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0. 7.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경 고 요 구

제 목 유물 취급 업무 부적정 등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를 실시 중인 유형문화재과의 요청에 따라 지정조사 대상인 금속활자 101점에 대하여 2016.1.4.~2016.7.2. 기간 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등과 함께 X-Ray CT 등 과학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유물 취급 시 손상 방지 미흡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해당 금속활자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 해당 활자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면, 강화처리 등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취급 시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등에 소홀하였으며, 2016.1.21. 최초 손상이 ‘願(원할 원)’ 활자에서 발생하였으면 해당 활자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 활자에 대한 강화처리 필요성 및 기타 손상방지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과 심도있게 논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사·분석을 진행함이 타당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여, 추가적으로 XRF 분석 중 琉 활자 표면의 산화물 층 일부가 탈락되는 손상을 입혔고, XRD 분석 등을 실시하며 行, 佛, 蓬 활자에 동일한 손상을 입히는 등 총 5점의 금속활자에 손상을 입힌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유물의 인수·인계 및 기록관리 미흡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조사·분석 의뢰자 등으로부터 유물을 인수할 때 조사 과정 중 해당 유물의 손상 발생 시 책임여부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이러한 사례 발생 시 책임여부 등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나 상기 금속유물의 소유자로부터 두 차례('15.12.30, '16.5.12)에 걸쳐 유물 101점(1차 16점, 2차 85점)을 인수하며 이러한 책임여부 등을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은 유물 101점 중 1차 16점에 대해 11개 방법, 2차 85점에 대해 6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학예연구사 5명 등 총 11명이 관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면, 각각의 조사·분석별 담당자가 조사 과정, 유물 상태, 손상 발생 및 특이사항 등을 조사·분석 대장 또는 작업일지 등에 기록한 후 다음 단계 조사자에게 인계하여 유물의 상태 등을 상호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이러한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분석 총괄 실무자가 1차 16점에 대해 보존과학연구실 소속 학예연구사 등에게 XRF·XRD 분석을 의뢰한 후 해당 유물을 인수할 때 해당 유물의 이상 유무를 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 유물 취급 관련 규정 구축 및 운영 미흡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국가 문화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시스템을 확립할 목적으로 2009년 4월 설립된 바, 설립 이후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나, 2016년 8월 현재 「문화재보존 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별도의 다양한 재질별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세부업무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당 금속활자를 인수한 당시부터 유물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해당 금속활자가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유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석 시작 전 유물 상태, 분석기법, 취급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의견 교환 및 유물취급자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 ① 추후 문화재에 대한 조사·분석 시 취급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손상을 방지하시고, 문화재의 조사·분석 과정 기록, 인계·인수, 취급 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 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 등에 관한 세부업무매뉴얼을 마련하시며, 유물 분석 방법 선정 시 유물의 상태, 분석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조사·분석 중 유물을 훼손하여 문화재청의 이미지를 훼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및 관련자에는 엄중 경고합니다.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센 터 장	'14.7.1.~현재	업무총괄	국립문화재연구소 센터
"	사무관	'10.2.22.~현재	업무관리자	"
"	연구사	'09.5.12.~현재	업무담당자	"
"	연 구 원	'15.4.1.~현재	업무보조	"
"	연 구 원	'12.1.9.~현재	업무보조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연구사	'11.1.14.~현재	XRF 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	연구사	'09.1.2.~현재	XRD 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실
"	연 구 원	'14.7.14.~현재	XRD 분석	"